

## (1) 해님과 달님

### 자연과 가까워지려는 마음

우리나라의 시간관념은 모두 **자연**과 관련됩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 천체와 관련됩니다. 1년을 ‘해’라고 하고, 1개월을 ‘달’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뜻하는 ‘날[日]’도 해의 의미입니다. ‘날이 밝았다.’고 하고, ‘날이 섰다.’는 표현도 합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표현도 해가 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날’과 관련이 있는 시간인 ‘낮’도 해와 관련이 됩니다. 옛말에는 저녁을 뜻하는 ‘나조[夕]’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나조’도 해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 달은 달의 모습이 바뀜에 따라 초승달과 그믐달로 나누어집니다. 15 일을 나타내는 ‘보름’이라는 시간 단위는 다른 언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름도 달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보입니다.** 달이 가득 찬 ‘보름’을 우리는 넉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우리의 소망을 다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날이 음력 보름인 것은 우리 민족의 달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말에서 자연은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님, 달님, 별님, 하느님’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연에 존칭을 나타내는 접미사 ‘-님’을 붙인 것입니다. ‘-님’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더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비나 눈이 내리는 것도 사람의 행위처럼 주체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신다’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언어에서 ‘비가 온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표현만 있는 언어도 많습니다. 한자어에서는 ‘비가 온다(來雨)’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물론 비를 존대하는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하느님 맙소사’라는 표현에서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행위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벌하지 말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한 병 중에 천연두는 두려운 마음에 ‘마마’라고 극존칭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두려움과 친근함이 동시에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를 산신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신도를 보면 늘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호랑이 그림이 민화에서 매우 귀여운 모습으로 친근하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서는 두려운 존재만은 아닌 듯합니다. 자연을 두려워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과는 친근해져야 한다는 조상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 (2) 품 안의 자식

‘품’이라는 말은 ‘가슴’과 유의어처럼 쓰이지만 느낌은 전혀 다른 말이다. ‘품’이라는 말에는 온도가 있다. 따뜻함이 있고, 정이 담겨 있다. ‘품’이라는 말만 들어도 포근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 단어의 매력이다. ‘엄마 품’이라는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도 따뜻함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아빠 품’이나 ‘그대의 품’이라는 말에도 다정함이 있다.

‘품’과 관련된 표현 중에 ‘**품 안의 자식**’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낳아서 기를 때는 부모만을 생각하던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모에는 관심이 없음을 한탄하며 사용하는 말이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엄마가 조금만 안 보여도 울고 난리가 난다.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불안해한다. **엄마 품을 찾는 것이다.** 간절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좀 지나면 아이들도 안다. 엄마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방을 혼자 쓰고 싶어 한다. 아이 나름대로의 독립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굳은 결심의 선언도 밤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밤이 깊어 가면 아이들은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슬그머니 부모의 방으로 찾아든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아이처럼.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다. 밤에 부모 잠자리 옆에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지만 영 엄마나 아빠의 품을 떠나지 못할 것 같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밤에 혼자서도 잠을 잘 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어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안 온다. 엄마가 안 보이면 울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도 늦게 온다. 방문을 닫고 지내기도 한다. 품을 찾기는커녕 소리 없는 단절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서서히 품 안을 떠나는 시기가 온다. 아이가 크면서 부모와의 이야기보다 재미있는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부모보다 가슴 저리게 그리운 사람도 생겨난다. 그러고는 한 발짝씩 부모의 곁을 떠나간다. 부모는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어차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홀로서야 하는 자식이기에 응원하며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손을 놓아야 함이 아파서 부모는 눈물짓지만, 홀로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 자식을 보며 대견함을 느끼기도 한다.

부모의 품을 떠나가는 시기가 저마다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모의 곁을 떠나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학에 갈 때와 군대에 갈 때, 결혼할 때가 품 안을 떠나는 시기가 된다. 아이가 대학을 먼 곳으로 진학하게 되면 품 안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애절한 이별을 처음 하는 순간이다. 자식이 군대에 가는 것이나 결혼을 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품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기뻐하면서도 아린 일이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은 주로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서운해서일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는데’라는 말도 부질없다.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곁을 떠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 더 잘 해 주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야 한다.

### 무궁화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무궁화 꽃과 대한민국 국장(國章)

무궁화 = '샤론에 피는 장미'라는 뜻의 Rose of Sharon

우리나라에는 1 백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서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계(丹心系) 흙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무궁화는 7 월 초순에서 10 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 그 루에 2 천~3 천여 송이가 피며,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이 있다. 일본의 나라꽃은 벚꽃이고, 영국의 나라꽃은 장미, 우리나라의 나라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꽃말(꽃 이름의 뜻)을 담고 있다.

일제시대(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때) 때 일본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는 무궁화를 뽑아 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러 무궁화꽃 나무들로 냄새나는 화장실을 둘러 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럴수록 무궁화를 민족의 상징으로서 더욱 사랑하고 지켜왔다.

1945 년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후에는 자연스럽게 국기봉을 무궁화꽃 봉우리로 정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상징 역시 무궁화로 정하게 되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 있다. 신라는 스스로를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었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의 노랫말로 인해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됐다.

## 한자급수 쓰기노트 7 급 1/4

급수 :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 한국한자검정 > 7 급-1 (25 자)

1. 가(家) 집 가 **字解** 家: 宀(집 면, 7 획) 총 10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jiā, jià, jiā, jiē, gū [영어] house, home, residence; family [일본어] カ, ケ, コ  
 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

家	家	家	家	家	家	家	家

2. 간(間) 사이 간 **字解** 間: 門(문 문, 4 획) 총 12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jiàn, jiān, jiǎn [영어] interval, space; place, between [일본어] カン, ケン  
 間間間間間間間間間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	---	---	---	---	---	---	---

3. 강(江) 강 강 **字解** 江: 水(물 수, 3 획) 총 6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jiāng [영어] large river; yangzi; surname [일본어] コウ  
 江江江江江江

江	江	江	江	江	江	江	江
---	---	---	---	---	---	---	---

4. 거(車) 수레 거 **字解** 車: 車(수레 거, 0 획) 총 7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chē, jū [영어] cart, vehicle; carry in cart [일본어] シャ, キョ  
 車車車車車車車車

車	車	車	車	車	車	車	車
---	---	---	---	---	---	---	---

5. 공(工) 장인 공 **字解** 工: 工(장인 공, 0 획) 총 3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gōng [영어] labor, work; worker, laborer [일본어] コウ, ク  
 工工工

工	工	工	工	工	工	工	工
---	---	---	---	---	---	---	---

## 백두반 읽기-이해해서 표현하기 연습 (2018.9.22) & 과제물

신라 시대의 집-계급사회와 연결된 모습



우선 그것을 알기 전에 신라의 계급제도를 먼저 살펴보아야한다.

신라 계급제도는 "골품제"로 계급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혼인, **가옥의 규모**, 옷 색깔 등이 정해졌다. 결혼은 같은 신분끼리 할 수 있었는데 만약, 서로 다른 계급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아랫 신분을 따라가야했으며 태어나는 아이조차도 아랫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성골이나 진골은 같은 계급끼리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짝이 사라지면서 근친혼이 성행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해야했다.



가형토기



신라 가형토기

\*안악 3 호분의 고구려 부석. 한 여인이 부뚜막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아궁이에서 지핀 불길이 고래 구들을 따라 굴뚝으로 빠지고 있다.



## 백두반 읽기-이해해서 표현하기 연습 (2018.9.22) & 과제물



<삼국사기> 현강왕 (875-886)편에는 서라벌에는 처마와 처마가 닿은 기와집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뿔감으로 솥을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신라인들이 뿔감으로 나무를 때지 않고 솥을 사용했다고 한 것에는 가옥구조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온돌은 추운 북쪽지방에서 발달한 반면에 대청마루는 남쪽지방에서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신라인들이 대체적으로 온돌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솥을 뿔감으로 사용했다면 그래도 난방을 겸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솥불은 집안에서 피웠을 것이며, 티피처럼 집 안의 화덕에서 솥불을 피웠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로 집안 화덕에서 불을 피운다면 그 연기가 심했을 것이기에 서라벌 사람들은 솥으로 대신했다고 나는 추정한다. 침대상이

있는 신라인들이 안방에 나무로 때는 난방은 연기를 심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부티나는 방법이 솥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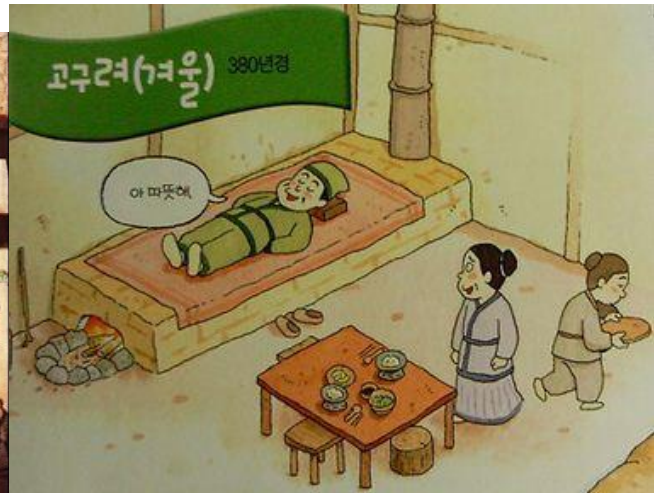
### \* 백제 시대의 집(家) 형태:

주상가옥은 창고형태로 사용된 것이 아닌 아마도 가옥 형태로 쓰인 어쩌면 최초의 2 층집 구조로 이해해야 할 듯



## 백두반 읽기-이해해서 표현하기 연습 (2018.9.22) & 과제물

고구려 시대의 집 : 무용총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가옥 형태



온돌 system & 고구려 시대의 대장간

## 백두반 읽기-이해해서 표현하기 연습 (2018.9.22) & 과제물

---

조선 시대의 기와집/한옥 & 초가집



초가집

